



금주의 말씀

행10장~8절



변의석 목사
엘림교회 담임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던 중년 남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깜짝 놀란 아내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도착하자마자 무인에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의와 함께 방문을 닫았다. 1분이 지나자 의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와 무인에게 편지를 갖다 달라고 한다. 무인은 사물의 편지를 찾아 의사에게 갖다 주었고 들어간 지 5분이 지나 의사는 얼굴이 사뭇개진 채 다시 나오며 드러머처럼 망치도 갖다 달라는 것이다. 아내 무슨 큰 병인가 싶어 걱정하며 연장들을 쫓겨다 주었다.

그런데 또 5분이 지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의사가 문밖으로 나오며 불을 달라는 것이었다. 때는 잠을 수 없던 아내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안으로 달려 들어가며 도대체 무슨 병이냐고, 죽을병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답을 별별 소리며 "무인 진료 기법이 안 열려요" 하며 서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쟁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의 어떤 이민 교회는 교회당을 짓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 분열되고 말았다. 분열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예배당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카펫 색깔은 비본질적 문제이다.

한 달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사골 할머니에게 무엇이었을 보고 오셨느냐고 물으니 "다닌 것 많이 다녔는데 본 것은 오직 노란 것발"이라 했다. 여행안내자가 노란 것발을 들고 잘 따라오라며 한 달 동안 길 안내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것발만 쳐다보다 돌아온 것이다.

교회 생활 하는 데도 이것이 문제이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부모님이 장로이고 목사이다. 큰 교회 다니느냐? 개척교회를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약 1장에서 말하는 경건은 말을 무덤에 하는 사람, 말을 단장하여 말하는 사람을 가르친다.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가까이하면 내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가까이하고 아니면 멀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을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 하지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한 형제자매

들이다. 한 지체들이다. 가족이다. 서로서로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하시고, 병든 자를 가까이하셨다. 약25절에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본문에 보면 경건하게 살았다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신분은 로마사람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는 가이사라를 섬렸던 군인이요, 아

쉬운 게 없는 부자요, 이방인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상상적으로나 당시 정황으로나 특이한 일이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하는 부분이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다는 뜻이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아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으면 사실 경건한 삶을 현재 못 살고 있는 증거이다. 경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항상"이라는 말에는 일상

경건한 사람

적 의미가 있다. 경건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일이 있건, 없건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습관이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방법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기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사탄과 적장과 자녀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이다.

또 하나 그의 경건의 모습을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신앙이 생활화 되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보았다는 말이다. 정복자로서 그 약소민족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밝아야 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성당했다." 고넬료가 구제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 성당 되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십계명을 따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 사랑으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생활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웃사랑 실천이다. 이웃을 향한 측은은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섬기는 구제의 창이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복을 주시기 위해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3. 바울의 동족에 대한 슬픔(로마서9:1~5)

바울은 "내 자신이 내 형제를 위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족에 대한 더 없이 큰 열정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떠한 비참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다. 사랑은 이처럼 모험적이며 용감하며 자기 무명적이다. 많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한 사람의 복지와 행복보다 많은

쪽에 우선해야 하므로 바울은 그제 가능 하다면, 그들의 행복을 자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서 있는 것이다. 바울은 너희들의 불신앙과 배적이야말로 내게 이 복에 당하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 마음에 인제 주고 있으니 차라리 너희들이 배척받는 것보다는 내게 배척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는 신자들의 사회에서 과분되기도, 교회에서 쫓겨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겨 이방인이나 세리취를 받아도 그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민족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성도를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고, 그의 이름이 교회 기록에서 삭제되었으면 좋다는 것이다. 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그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교회의 저버림을 받아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아도 자기로서는 민족하겠다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한글대학교 총장전임

〈교회는 바른 지식과 충분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체제적 사상과 비전리가 분할하는 세상에서, 과학이 아닌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학교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달 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세속의 법적 규제나 정치적 힘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다.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으로 무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계각종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정교분리)가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실 현대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에서 오랜 세월의 고통스런 역사적 경험과 피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거짓 지식은 세상은 파멸로 이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세아 4:6)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세속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지적 통찰력을 의미한다. 바른 지식과 충분한 지식이 결여된 교회와 성도는 거짓 사상과 문화적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바른 지식〉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영성만으로는, 세상의 그릇된 사조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① 바른 역사 교육:

또한 사회모순을 지적하면서 지상천국을 약속했던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는 더 큰 혼란과 폐단을 야기했을 뿐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② 바른 과학 교육:

저명한 과학철학자인 칼 포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아들러의 개인심리학·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이 사이비과학(pseudoscience)인 이유를 논증함으로써 과학과 사이비과학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칼 포퍼가 제시한 과학과 사이비과학의 판별 기준은 설명과 예측 기능이다. 학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의 경우는 어떻게라도 꿰맞추어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의 경우는, 예측의 경우는 시간이 그 진위를 드러낸다. 예측이 틀리면, 그것은 과학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종교전쟁(18)

성도들은 기독교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떠한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사상의 자유, 인권, 정교분리의 가치를 꽃피웠는지 배워야 한다. 역사를 바로 알 때, 교회가 과거에 벌였던 신정국가적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틀 안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운다. 우리는 왜 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인(성도)들도 교회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듯이, 교인(성도)들은 교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과학의 본질에 대해, 특히 묵학자들은 바르게 알고 성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수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정치권력을 통한 종교의 강제는 실패하며, 진정한 신앙의 수호는 법적 처벌이 아닌 영적·지적 성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막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제도이다.

교회는 성도들을 바른 지식, 충분한 지식, 바른 역사, 바른 과학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대다수 교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인입니다

수양관 금매

- 위치: 장성군 북일면 솔재로 (교차점 정은천, 편백숲 5분거리)
- 면적: 1200평
- 교회 3층 -휴게실, 숙소 3층
- 단독 2채 -저온창고, 정자
- 금액: 상단후 결정

010-7924-8291

교회 임대(반짜야)

- 위치: 서구 내방로 209번길(상일여고 옆)
- 면적: 71평
- 금액: 보증금 5백만 / 월 50만원
- ※ 시설 관리금 없음
- ※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서방로 172번길 10-7, 2층
- 면적: 20평
- 금액: 보증금 300만원 / 월 25만원
- ※ 관리금 있음 (성물 및 시설)
- ※ 주차장 있음

010-6254-8462

교회당 임대

- 위치: 동구 필문대로 142 /2층
- 면적: 35평
- 금액: 보증금 300만/월45만
- ※ 비품대 있음 ※ 시설 완비
- ※ 조정가능

010-2738-7277

교회매매

- 위치: 북구 연양로 7번길 51-31
- 면적: 대지 132평, 도로 15평
- 1층-예배당 35평
- 2층-사택 37.5평
- 금액: 9억3천만원 (중축가능 / 조정가능)

010-7653-8337

교회당 매매

- 위치: 광산구 수암동 1243, 1244
- 면적: 대지 166평
- 건축면적 204평 3층
- 금액: 23억
- ※ 태양광 6K / 도시가스
- ※ 이전으로 인해 매매합니다.

010-6206-7042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사암로(대리본)
- ※ 우신동, 소촌동, 신촌동에서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대지 121평 연건평 110평
- 1층-60평(사택) 식당, 교육관
- 2층-50평(예배당, 120㎡/50㎡)
- 금액: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임대

- 위치: 임방울대로 142-10(상성빌딩4층)
- 면적: 82평 / 바로 사역가능
- 교회, 유아실, 서재, 교육관, 교제실
- ※ 각 방 에어컨 설치 ※ 울리모빌
- ※ 상가문자사용(탁월중)가능
- 금액: 보증금 40만 / 월 120만원 or 보증 50만 / 월 100만원
- ※ 월세 조정가능

010-5514-1158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수실
- 금액: 7억원
- ※ 리모델링(천장경 황도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중흥동 806-13(2층)
-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35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 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군영로 159-1 / 2층
- 면적: 40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 관리금 있음 ※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건물매매

- 위치: 동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교사거리
- ※ 광주주요역목 옆-연철2호선 일교사거리역 옆
-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 1층-주목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현상빌딩)
- (1층 주목과 교육관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 2층-교회 본당 40평
- 3층-유아실, 방수실 15평 (실지대 포함 중합)
-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운암동 대자로 87 2층
- 면적: 123.2㎡
- ※ 토발 10평 별도 있음
- ※ 1층은 2층(공인) 분고 자유로움
- 금액: 2억원 ※ 살림 가능
- ※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상가건물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군영로 182번길(설기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평 131평
- 1층-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 2층-교회 / 3층-조성 사무실 / 4층-사택
- 금액: 5억8천(조성가능) ※ 교회비품으로 드레싱(매끼)
- ※ 교회 이전으로 폐매, 기도원, 개척교회, 목자서신, 타임증가능 ※ 주차면 4개만 단지 내

010-4154-7945